

장원영 비녀에 “봉황 문양 중국 것” 황당 주장

한국의 인기 걸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이 최근 프랑스 파리에서 선보인 한국 전통 장신구 ‘봉잠(鳳簪)’(봉황 모양의 비녀)을 놓고 중국 일부 누리꾼들이 ‘문화 강탈’이라는 주장을 내세워 논란이 일었다.



▲ 한국 전통 장신구 봉잠을 착용한 걸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 사진=인스타그램(장원영) 캡처

지난 16일 공개된 패션 잡지 보그 코리아의 유튜브 채널에서 장원영은 프랑스 파리 패션 위크를 방문해 봉잠을 착용한 모습을 선보였다. 그는 보그 코리아 유튜브를 통해 “이 비녀는 한국의 멋을 파리에 보여드리고 싶어서 한국에서 가지고 왔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이에 중국 유명 인플루언서 명선무무가 한 포털사이트에 ‘한국 그룹이 또 중국 문화를 훔쳤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논란이 촉발됐다.

명선무무는 글에서 “장원영이 봉황 비녀를 한국 것이라 주장하며 방송을 했다.”며 “용과 봉황은 중화민족 고유의 상징물로, 한국에도 비녀가 있지만 봉황 비녀는 한국 것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중국 일부 누리꾼들도 “중국산이라는 것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라거나 “우리 전통문화를 훔친 것으로 사과를 받아야 한다.”며 동조했다.

중국 누리꾼들의 억지 주장이 알려지자 한국 누리꾼들은 “도적이 누구보고 도적이냐?” “비녀로 한국의 멋을 알릴 생각을 하더니 멋지다!” 등 반박에 나서며 한편 장원영을 향해서는 응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BTS ‘진’, 입영 연기 철회...입대 예정



▲ ‘방탄소년단’ 진. 사진=빅히트 엔터테인먼트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팀의 만형 진을 시작으로 각자 순서에 따라 입대하겠다는 뜻을 전격 발표했다.

방탄소년단의 소속사 빅히트뮤직은 17일 “진 이이탈 말 입영 연기 취소를 신청하고 이후 병무청의 입영 절차를 따를 예정”이라며 “다른 멤버도 각자의 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병역을 이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992년생으로 만 30세인 진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입영 연기 추천을 받아 올해 말까지 입영이 연기된 상태다. 이에 입영통지서 발부 시점에 따라 이르면 올해 안에 입대할 가능성도 있다.

현행 병역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체육 분야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체부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예술·체육 분야 특기로 ‘대중문화’는 포함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방탄소년단은 지난 15일 부산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열린 단독 콘서트 ‘Yet To Come in BUSAN’에서도 (현재 잡혀있는) 마지막 콘서트라고 언급한 바 있다.

방탄소년단은 2013년 6월 ‘투쿨포스쿨’(2 COOL 4 SKOOL)로 데뷔해 글로벌한 인기를 누리며 K팝 가수 최초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 1위 곡과 앨범 차트 ‘빌보드 200’ 1위 앨범을 6개씩 배출했다.

K팝 인기로 미국 대학 한국어 수업 ‘귀하신 몸’

미국에 K팝 열풍이 불면서 대학의 한국어 수업 수강생이 크게 증가했다.



▲ K팝 열풍으로 미국 대학의 한국어 수업 수강생이 크게 증가했다. 방탄소년단 LA 공연 당시 열광하는 아이 팬들. 사진=pagesix.com

19일 공영 라디오 채널인 NPR은 미국현대언어학회(ML A) 통계를 인용해 2009년부터 2016년 사이 미국 대학의 한국어 과목 수강자 수는 78%가 늘어나 1만5천 명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미국 대학에서 전체 언어 과목 수강자 수는 거의 변동이 없었는데, 한국어 수업만 큰 관심을 끌었다는 것이다. NPR은 지난 10년간 사이의 ‘강남스타일’과 BTS의 활약 등으로 K팝이 큰 인기를 끈 것이 한국어에 대한 관심을 높인 요인이라고 진단했다.

한국어는 전통적으로 수강 신청자가 많지 않아 학교 측의 지원도 적었던 탓에 각 대학의 동아시아 관련 학부

는 갑자기 넘쳐난 한국어 수강 신청자들을 수용하느라 애를 먹고 있다고 NPR은 전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부소장이자 을 맡고 있는 빅터 차 조지타운대 교수는 NPR과 인터뷰에서 “나처럼 1980년대에 대학에서 한국어를 배운 사람들은 모두 한국계였다.”며 “하지만 지금은 절반 이상이 외국계 학생들”이라고 전했다.

조지타운대는 기존 과목으로 넘치는 한국어 수요를 감당할 수 없게 돼 올가을 학기부터 새 한국어 과목을 개설했다.

캐나다 토론토대 동아시아학과의 미셸 조 교수는 자신이 가르치는 한국어화·미디어 과목들의 수강생 80%가 한국계가 아닌 학생들이라고 밝혔다.

통증 전문 치료 병원

오렌지[백] 한방·척추병원

Baek Chiropractic-Acupuncture, Inc

“29년의 임상경험과 한방/척추의 정확한 진단”으로, 통증의 원인을 파악하고 진료해 드립니다. 침, 부항, 한약/보약, 척추교정, 엑스레이, 각종물리치료를 모두 한곳에서 치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

지정병원 승인필요 (서울/세종/대한) 센트럴 헬스, 웰케어 지정병원 승인필요 없음 Scan, Care 1st Clever Care, Kaiser Humana, Blue cross Blue Shield, AARP 일반 메디케어 파트 B

각종 보험

오바마 케어 Health Net, Blue cross Blue Shield, Kaiser Aetna, Cigna United Health Care HMO- 주치의 허가 또는 승인 없이도 치료가능합니다 *예외가 있으니 전화 확인 요망

교통사고

사고 보험 처리 도와드립니다.

무료 상담! 전화주세요!

진료 내용

두통, 어깨, 목, 허리, 무릎, 발목, 저림, 오십견, 안면마비, 우울증, 수면장애, 감기, 갱년기 증상 등

진료 시간 월~금 9am~6pm/ 토 9am~12pm 점심시간 12pm~1pm/ 목 closed

예약/상담 714.530.7001

9681 Garden Grove Bl., Suite 101 Garden Grove, CA 92844(모란각 식당 옆)



Dr. 백사론 한의사, 척추신경의사 SCU 척추 외대 졸업 South Baylo 한의대 졸업

* 그 외 보험도 전화로 확인해 드립니다. (보험 없으신 분들을 위한 특별 플랜도 있습니다.)